

# 나주시 로컬푸드 인증 시스템 구축 속도 낸다

### 구축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내년부터 시행 친환경과학영농센터,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등도

나주시가 산지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한 인증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 9일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주농업진흥재단, 농협, 협력매장, 출하 농가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로컬푸드 인증 시스템 구축'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로컬푸드 인증시스템은 산지 농산물 생산 체계, 품질관리 등을 일정 기준에 따라 검사하고 적합 농산물 품목에 나주시 공식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로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로컬푸드 인증시스템 개발과 정착방안, 기준, 매뉴얼, 품목군·별 안전성 가이드

드라인 정립에 따른 친환경 농업 전환 등 성공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반적인 로드맵을 제안했다.

나주시는 민선 7기 주요 공약 분야인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자치농업 실현'을 목표로 로컬푸드의 공익적 가치 확산과 선순환 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159개 시·군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로컬푸드 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 A등급을 획득하며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시는 이번 인증시스템 구축과 함께 친환경과학영농센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시설·장비를 구축하

고 잔류농약성분 검사 등을 2022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로컬푸드 인증시스템의 성공적 도입과 정착을 위해서는 농협, 출하 농가의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소비자에게 두터운 신뢰를 얻고 농가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이번 인증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는 로컬푸드직매장 빛가람점과 금남점 2개소 직영을 비롯해 지역 농협 직매장, 협력매장 6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n@kwangju.co.kr

## 화순119안전센터 2위 전남 소방기술경연 '화재진압'

화순소방서 소속 화순119안전센터가 '2021년도 전라남도 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화재진압 분야 2위에 선정됐다.

전남소방학교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는 속도 방수와 화재진압 전문 등 화재진압분야에 18개 소방서가 참여해 열띤 경연을 벌였다.

소방경 박철희, 소방장 김희경, 소방교 조철현, 소방사 최재형·오창선·김진열 등으로 구성된 화순119안전센터 출전팀은 이번 대회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실전과 같은 강도로 철저하게 훈련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해바라기 물결 장성 황룡강을 대표하는 꽃 해바라기가 개화 시기를 맞아 눈부신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다. 장성군이 조성한 해바라기 정원은 황룡강 상류 지점인 황미리랜드 은행나무길에서 시작해 장안교까지 이어진다. <장성군 제공>

## 강진군 '바지락 명성' 되찾기 분주

### 강진만 일대 14곳에 종패 65t 살포...내년부터 특산단지 조성

강진군이 강진산 바지락의 명성 찾기에 나섰다.

강진군은 바지락 서식 환경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강진만 일대에 바지락 종패 살포 사업을 추진했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패류 자원 회복을 위해 1.5cm 크기의 고품질 바지락 종패 65t을 신전면 사초리, 칠량 봉황리, 장계리 등 14개소에 살포했다.

전라도 지역에서 '반지락'이라고 불리는 바지락은 이동하지 않고 한 곳에 정착해 살아가는 특성이

있으며 모래와 펄이 섞인 곳에 주로 서식한다.

예부터 강진산 바지락은 살이 통통하고 맛이 좋아 서울·경기 일대에서 최상의 품질로 인정받아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에서 가장 빨리 경매가 이뤄질 정도로 명성이 자자했다.

하지만 지구 온난화로 인해 해수와 갯벌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바지락 생산량이 급감한 상황이다.

군은 옛 명성을 회복하고 바지락 자원 육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1억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종패

와 서식장 모래 살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내년부터 종패 살포 외에 바지락 특산단지를 조성하는 등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살포한 종패는 1년 6개월 후 4cm까지 자라면서 채취가 가능해져 어민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꼬막, 바지락 등 패류 살포 사업이 어촌계의 안정적인 소득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바지락 종패 살포로 어업인 소득 증대는 물론 수산 자원량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 함평군 무인 민원발급기 24시간 운영

### 군청 민원실 주말·휴일 등 365일

함평군은 군청 민원봉사실(2청사)에 설치된 무인 민원발급기(사진)를 15일부터 365일 24시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평일 시간대(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 운영하던 무인민원발급기를 365일 24시간 가동함에 따라 직장인, 맞벌이 부부, 학생 등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함평군청 민원봉사실 외에 함평읍·손불면·월야면사무소에 각각 설치·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는 기존처럼 평일 시간대에만 이용이 가능하므로, 주말과 야간에는 함평군청 민원봉사실 무인민원발급기(2청사)로 방문해야 한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신분증 없이 지문(오른쪽 무인) 확인을 통해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원부, 가족관계증명서, 농지원부 등 75종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음성안내 시스템, 점자 키패드, 화면 확대, 이어폰 등 편의 기능도 포함됐다. 이상의 함평군은 "무인민원발급기의 24시간 운영으로 늦은 시간뿐 아니라 주말에도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민원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불편 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황윤희 기자 hwang@

## 화순군·장흥군 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 선정

### 도체육회, 종합형 클럽 16개 보유

대한체육회 주관 사업인 2021년도 신규 종합형 공공스포츠클럽 2차 공모 선정 단계로 전남에서는 화순군·장흥군체육회가 최종 선정됐다.

1차 서류평가, 2차 발표평가, 3차 현장실사와 대한체육회 최종 선정위원회 결정 등의 공모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된 화순군과 장흥군은 인구 20만 미만인 중소도시형으로 화순군에서는 축구, 복싱, 탁구종목을, 장흥군에서는 소프트테니스, 자전거, 파크골프종목을 운영하며 향후 5년간 각각 최대 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로써 전남도체육회는 총 16개의 종합형 스포츠클럽(3개 이상 종목 운영)을 보유하게 됐다.

특히, 전남도체육회는 향후 미보유 6개 군체육

회(담양, 고흥, 무안, 함평, 완도, 신안)를 상대로 공모 참여를 적극 권장함으로써 22개 전 시·군체육회로 확대시킨다는 계획이다.

김재무 회장은 "공공스포츠클럽이 학교·생활·전문체육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지역 주민의 체육활동 참여를 제고하고 우수선수 양성, 은퇴선수와의 체육지도자 일자리 제공 등 효율적 활용 등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동반성장을 유도하는 공공스포츠클럽의 1시·군 1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의 공공스포츠클럽이 6월 11일 기준 총 174개(종합형 113개, 한종목 61개)인 가운데, 이 중 전남은 총 25개(종합형 16개, 한종목 9개)의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생태와 도시를 이어주는 곳

#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순천 3E프로젝트

생태  
교육  
경제

- 순천시
- 순천시의회
- 순천광양축협
- 순천농협 조합장 강성채
- 한국수자원공사주담담 이사장 박병국
- 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용덕